

## 윤석열 대통령,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노력과 성과에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

윤석열 대통령은 7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플로팅아일랜드 컨벤션홀에서 '청년정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청년과 함께 바로서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중앙과 지방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각 부처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 청년인턴 등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의 수립과 국정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과 정부 관계자 등 약 650명(온라인 비대면 참여 210여명 포함)이 모여, 대한민국 청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청년들을 정책의 대상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가는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여러분의 역할에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여러분께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노력과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하며 “우리 함께 바뀌어갑시다”라고 청년들을 격려했다. 이번 회의는 ①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1년 성과, ②청년 고충 3대 현안, ③청년이 주도하는 3대 개혁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청년들이 직접 대통령과 관계 부처 장관들, 또 현장에 모인 청년들에게 관련 현안을 발표·질문하고 장관과 대통령이 이에 답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유재은 위원이 희망-공정-참여의 3대 기조로 추진된 정부 청년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1년 성과'를 발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현재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3대 고충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먼저 금융위원회 2030자문단에서 활동하는 이한결 단원이 '가상자산(코인) 사기' 문제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어서 '청년도 지방시대' 주제로 지방청년특별위원회 박성민 위원이 균형발전을 위한 제안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승연 청년위원이 '청년이 말하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전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션에서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3대 개혁과제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과 정부에 바라는 점이 논의됐다. 먼저 고용노동부 임소형 청년보좌역이 '노동개혁'에 대해, 이어서 국가교육위원회 김태일 청년위원이 '교육개혁'에 대해,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손윤희 청년보좌역이 '연금개혁'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청년들과 관련된 문제는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을 통해 청년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최광수/기자

### 대통령, 청년정책 점검회의 주재, 청년 650여 명 모여



### 경기도, 시군과 협력해 '물놀이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6일 영상회의 개최

경기도는 6일 가평군 등 도내 5개 시군 물놀이 안전대책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 물놀이 안전관리 종합대책 영상회의'를 열고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우선 도내 여름철 내수면 물놀이 관리지역 86개소와 위험구역 8개소에 대해 '현장 중심 단계별 물놀이 지역 안전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현장에 설치된 물놀이 안내표지판 등 각종 안전시설에 대한 관리·점검을 지속해서 시행하고, 사고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을 중점 배치해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물놀이 지역에 대한 예찰·계도 활동을 실시하여, 행락객들의 안전한 물놀이 활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8월 말까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비상 근무반'을 도·시군별로 각각 편성·운영해 물놀이 안전관리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내수면 물놀이 지역의 안전 예방 수칙, 물놀이 안전 예방 CCTV 설치 우수사례 등을 공유했다. 최병갑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물놀이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각 시군 현장에서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만식/기자

### 경북도, 복지 사각지대 新수요 대상 사회서비스 공모사업 선정

안동·구미·의성·칠곡 공모 선정, 국비 10억원 확보  
 황영호 국장, “복지 사각지대 중장년 1인 가구 및 가족돌봄 청년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 많은 도민들이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길”



경북도는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에 안동·구미·의성·칠곡이 최종 선정돼 국비 10억원을 확보했다.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올해 5월 발표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1인 가구 및 질병·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재가돌봄·가사 서비스를 기본으로 수요자에 따라 심리지원, 병원동행,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통한 교류증진 등 맞춤형 특화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게 된다. 선정된 4개 시군에서는 7월 한 달 동안 전자바우처 시스템 등록, 제공기관 선정 등 관련 절차를 마치고 신청자를

모집·선정해 8월부터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4개 시군 대상자는 기본서비스인 돌봄·가사서비스에 특화서비스를 추가해 신청할 수 있다. 황영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중장년 1인 가구 및 가족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삶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상돌봄 서비스 시행으로 보다 많은 도민들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충남도, 치유농업 프로그램 이전·실증화 '박차' 도 농업기술원 육성 농가서 시범 운영 시작...치유 효과 검증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6일 논산시에 있는 에파코케어팜에서 시군 치유농업 담당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농촌진흥청 개발 치유농업 프로그램 실증화 사업의 첫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오는 7월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일정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이전 및 맞춤형화를 통해 치유농업의 현장 확산을 도모하고 전문적인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프로그램 이전 대상 농가로 선정된 논산 에파코케어팜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심, 휴식, 편안함 - 휴식형 치유관광' 프로그램을 이전받아 농장 자원과 환경에 맞게 프로그램 운영 지침(매뉴얼)을 제작했으며, 총 3회에 걸쳐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시범 운영은 이번 시군 치유농업 담당자



### 전남도, 광양 울촌산단에 포스코 HY클린메탈 공장 준공

전남도와 투자협약 2년만...이차전지 리사이클링 시장 선점 기대



전라남도는 7일 광양 울촌산업단지에서 포스코 HY클린메탈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전남도와 2021년 5월 1천200억 원 규모 투자협약 후 2년여 만이다. 준공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 천혜화 중국 화유코발트 사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김준형 포스코퓨처엠 사장, 김희재 국회의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포스코 HY클린메탈은 포스코그룹(65%)과 중국 화유코발트사(35%)가 합작해 설립한 회사로, 폐배터리에서 리튬·니켈·코발트 등 유가금속을 추출해 재활용한다. 이를 위해 울촌산업단지에서 리사이클링 공장 설립 등 1천200억 원(포스코 780억·화유코발트 420억)을 투자했다. 최근 전기차 시대가 본격 도래하면서 폐배터리에서 핵심 광물을 추출하는 리사

이클링 시장이 2023년 7천억에서 2050년 600조까지 급성장할 전망이다. 특히 배터리 핵심 소재인 니켈은 자원 고갈과 투자 지연 등으로 2025년 이후 공급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리사이클링 사업은 이차전지 원료 공급망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준공된 리사이클링 공장은 연간 황산니켈 1만 2천 톤, 황산코발트 4천 톤, 탄산리튬 2천500톤을 생산하며, 연 1천억 원의 매출이 기대된다. 김영록 지사는 축사에서 “포스코그룹은 시대적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해, 이차전지 원료부터 소재 분야까지 수직계열화에 나서는 등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며 “이번 리사이클링 공장 준공은 포스코의 이차전지 밸류체인을 더욱 탄탄하게 다지는 것은 물론, 전남의 미래첨단소재산업 중심지 도약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그룹은 지난 3일 '친환경 미래소재 100년 기업' 도약을 위한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이차전지, 친환경 철강, 수소 등에 2030년까지 121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전체 투자금액의 60% 이상인 73조 원을 국내에 투자하고 이 중 30조 원은 광양만권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포스코 HY클린메탈 공장 준공으로 포스코그룹은 원료→전구체→양극재 생산으로 이어지는 이차전지 산업의 밸류체인 완성에 더욱 다가갈 수 있게 됐다. 최근 5년간 전남에 3조 4천600억 원을 투자하는 등 지역경제를 받쳐주는 든든한 기업 역할도 하고 있다. 박종배/기자

## 영양 들여다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다들 물어봐요...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길: 자연의 선물, 산비탈과 냇물,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함백계곡, 죽백수림, 외씨버선길

매: 영랑의 역사, 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물마을, 주심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천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빛: 영랑의 박물관/공원, 영랑국제영화제, 영랑문화관광, 영랑생태공원, 영랑호수생태공원, 영랑호수생태공원, 영랑호수생태공원

맛: 영랑의 맛, 영랑의 맛, 영랑의 맛

심: 영랑의 심, 영랑의 심, 영랑의 심

숲: 영랑의 숲, 영랑의 숲, 영랑의 숲

김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랑나들이

- 영랑의 자연: 일월산, 산비탈과 냇물,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함백계곡, 죽백수림, 외씨버선길
- 영랑의 역사: 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물마을, 주심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천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랑의 박물관/공원: 영랑국제영화제, 영랑문화관광, 영랑생태공원, 영랑호수생태공원, 영랑호수생태공원, 영랑호수생태공원

ida, ygg, ygg, ygg

# 청송군의의회 의원연구단체, '청송 관광 활성화 연구회' 착수보고회 개최

### 심상휴의원, "체류형 관광자원개발을 통해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해 연구하게된 이번 보고회가 청송 관광산업에 일조 할 수 있길"

청송군의의회 의원연구단체 '청송관광 활성화연구회'는 지난 7일, 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증진을 통해 청송군 관광 발전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청송관광활성화연구회'는 청송군 관광의 현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주민과 함께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 증진을 목적으로 연구하는 단체이며 심상휴의원을 대표로 권태준의장, 윤영경의원, 조찬걸의원 '(사)한국정치발전연구원'과 함께 연구 활동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정미진위원을 대표로 황진수부위원장, 박신영의원 소속된 '청송 인구소멸대응연구회'는 저출산·고령화 등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 특성 및 잠재력을 바탕으로 사례조사 및 청송군 실정에 맞게 인구소멸 대처방안을 찾는 연구 단체이며 '문화관광진흥연구원'과 함께 연구 활동할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심상휴 대표의원,

권태준 의장, 윤영경 의원, 조찬걸 의원을 비롯해 용역수행업체인 (사)한국정치발전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목적은 "청송군 관광의 현 실태를 분석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관광객 증진을 통해 청송군 관광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착수보고회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기대효과 제시 ▲연구 수행 계획·운영 계획 수립 ▲연구 추진 일정 안내 ▲용역 추진 계획 보고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 응답과 건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대표의원인 심상휴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하여 청송의 자연자원과 음식 그리고 휴양 프로그램 등을 가마한 체류형 관광자원개발 통해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하여 이번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조금이나마 청송의 관광산업에 일조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용인특례시의의회 의원연구단체 [스타트업 101],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용인특례시의의회 의원연구단체 [스타트업 101]은 7일 4층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는 강영웅 대표를 비롯한 의원연구단체 회원들과 연구용역 실무자들이 참석했으며, 용역 추진사항을 검토하고 보완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지난 5월부터 추진된 이번 연구용역은 용인의 자원 현황을 분석해 지속가능한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주식회사 굿기가 맡아 7월 중 완료할 예정이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발표를 맡은 조강현 연구원은 청년창업 정책에 대한 이해와 선행연구 검토 등 현재까지의 연구내용을 보고했다.

강영웅 대표는 "용인시산업진흥원과 용

인 청년LAB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며 "오늘 의원들의 제안이 반영된 내실 있는 연구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주욱 간사는 "용인의 현재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이 핵심"이라며 "청년창업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연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의원연구단체 [스타트업 101]은 강영웅(대표), 기주욱(간사), 신민석, 김윤선, 김태우, 안지현 의원(6명)으로 구성됐다.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분석해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자 결성됐으며, 회원들은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용인 청년들의 창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최만식기자



# 인천시의의회, 마약근절을 위한 'NO EXIT' 캠페인 동참

### 정해권 산업경제위원장, 불법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 일깨워야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국·연수1) 산업경제위원장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불법마약류 근절을 위해 'NO EXIT' 캠페인에 동참했다.

'NO EXIT' 캠페인은 최근 SNS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불법마약류에 대한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고자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지난 4월 26일부터 시작한 마약 근절 캠페인이다.

캠페인은 '출구 없는 미로(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문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와 함께 인증 사진을 촬영해 온라인으로 홍보하고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인천관광공사 백현 사장의 지목을 받은 인천시의의회 정해권 산업경제위원장은 "마약에 한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만큼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아예 불법마약에 접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불법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불법 마약 근절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해권 위원장은 'NO EXIT' 캠페인의 다음 주자로 인천시 환경국 김철수 국장과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김인수 본부장을 지목했다.

김종남/기자

# 하남시의의회 '선진의회 발전 방안 찾자...' 정책 연구용역 착수

### 의원연구단체 '의회발전 연구회' 7일 착수보고회 개최...혁신전략 및 시스템 구축 나서

하남시의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하남시 의회 발전 연구회'는 7일 선진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2층 상임위원회실에서 열린 이날 착수 보고회에는 '의회발전 연구회' 대표 금광연 의원을 비롯해 부대표 정혜영 의원, 최훈중·오승철·오지연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해권 전문위원 '제윤의장' 관계자가 과업 개요와 주요 내용 및 추진 계획에 대해 발표한 후 연구단체 소속 의원 및 참석자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연구용역을 책임연구원을 맡은 박형규 제윤의장 지방자치연구소장은 착수보고회에서 "본 연구를 통해 타 시·군 의회와 해외 지방의회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하남시의회의 적용 가능 여부를 분석하고, 의정활동 지원의 효율적인 요소 발굴 등 다각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 세부 내용으로는 ▲기존 의회 운영 성과와 한계 및 제약사항 진단 ▲의장단·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역할 및 권한 범위와 사무국 지원업무의 효율적 업무분장 ▲선진의회로 발돋움하기 위한 하남시의의회 자체 조례 정비 및 발굴 제시 등을 진행한다.

금광연 대표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지방자치 2.0' 시대를 맞이한 가운데 본격적

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의원단체를 결성 활동하고 있다"며 "이번 정책 연구용역을 통해 하남시의의회에 꼭 필요하고 차별화된 정책을 발굴하고, 실용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 대표의원은 "제9대 하남시의의회는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정책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앞으로도 정책 연구와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구용역은 이날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5개월간 추진, 종합적인 평가와 정책 제언을 통해 맞춤형 발전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의회발전 연구회'는 앞으로 타 시·군 의회와 해외 지방의회 우수사례 발굴 조사를 통해 하남시 현실에 맞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남시의의회에 적합한 차별화된 의회발전 관련 신규 정책 발굴 및 핵심과제를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의회발전 연구회'는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지방의회 선진사례 연구를 위해 부산광역시의회와 경남 통영시의의회를 방문, 지방의회 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의회 간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최정근/기자

# 시흥시의의회, 2023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 참가

### 정해권 산업경제위원장, 불법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 일깨워야

경기 시흥시의의회가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리는 '2023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에 참가한다.

지방의회·지방행정 상호 간 교류협력을 통해 지방의회의 발전 방안 모색 및 대외적 정책홍보의 장이 될 이번 박람회는 7월 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9일까지 개최된다.

시흥시의의회는 홍보관(부스번호 E09)을 운영하며 의정활동 및 우수 법안을 소개하고 특별위원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현황 및 성과를 공유하는 등 정책 홍보에 집중할 예정이다.

박람회에서는 7일과 8일 양일간 지방의회 의원 및 공무원을 위한 '지방자

치 연구', '국가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소멸 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 '의원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주제로 전문가 특강이 진행되고 8일에는 지방의회와 지방행정 대상 시상식이 개최된다.

또한 박람회 기간 동안 대한민국 청소년의회교실, DIY만들기 체험, 국민안전체험관 운영 등 부대행사가 함께 진행되어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송미희 의장은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각 지자체 및 의회의 정책 우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우용/기자



# 종로구의의회 라도균 의장, 창신·승인 '신속통합기획' 현장방문 브리핑 참석

종로구의의회 라도균 의장이 5일 서울시의 창신·승인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현장 브리핑에 참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듣고 오세훈 시장과 골목을 돌며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현장 방문에는 최재형 국회의의원, 정문헌 종로구청장, 종로구의의회 김종보 의원, 박희연 윤리특별위원장이 함께 참석했다.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창신동 23·56인동 56 일대는 구릉지형을 살린 도시

경관과 함께 2000세대 규모의 쾌적한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10만 4,853㎡로 한양도성과 낙산연덕으로 둘러싸인 구릉 지형이다. 이 지역은 경사도가 가파르고 전반적인 생활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컸다. 특히 소방차 진입도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도로·교통 상황은 주민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어 고민이 컸다.

이에 2007년부터 뉴타운 사업이 추

진됐지만 2013년 구역 지정이 해제됐고 이후 서울의 1호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불만이 있었다.

라도균 의장은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어 주민들의 생활 환경이 개선되고 삶의 질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우용/기자









# 경북도, “물산업 지식연구회” 산·관·연 협력 성공 모델로 운영



물산업 지식연구회는 연구중심 혁신도정의 성공적 모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협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앞장

경북도는 물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함께 지난 7일 대구 엑스코에서 경북 물산업 선도 기업 대표들과 물산업 유관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함께 한 가운데 '2023년 제2차 물산업 지식연구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 물기업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해외 판로개척 및 신기술 분야 진출을 위해 물산업 활성화에 대한 조연과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물산업 우수제품 지정제도와 관급시장 활용전략'과 한국수자원공사의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과 성과공유제 등 물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등 정부 정책 방향과 시장동향을 공유했다. 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물산업 연구조합 협력 상황 및 물산업 지식연구회 연구개발 지원 사업 설명과 더불어

공적인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경북도는 지역 물기업들이 최신 산업기술 정보를 습득하고, 물산업 발전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에서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이며, 물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김광열 영덕군수, 취임 1주년 걸치레 없이 소통행정 실천

민원처리반, 소통의 날 등 현장 중심의 행정 이어가

김광열 영덕군수는 취임 1주년을 기념해 발로 뛰는 현장 중심 민원 해결과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행정을 펼치기 위해 형식적인 기념식을 취소하는 대신 군정발전유공 표창 수여, 명예이장 출장복병, 현장 민원처리반 체험, 현장 소통의 날 행사 참여 등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먼저, 지난 3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공무원 정기 승진임용식에서 승진자 57명을 대상으로 임용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번 인사는 승진 기간이 늦어진 하위직과 소수 직렬 직원이 주요 대상으로, 전체적인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초점을 맞췄다. 이어 여러 분야에서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한 민간인과 우수공무원을 격려하기 위해 '2분기 군정발전유공 표창' 수여식을 열어 민간인 21명과 공무원 19명 등 총 40명에 대해 표창을 수여했다. 또한 같은 날 '현장 소통의 날' 간담회를 열어 지역으로 귀촌한 문화예술기획, 여행 매니지먼트, 요식업 분야의 청년대표 6명을 만나 청년들의 어려운 사항들을 경청하고 서로의 지향점을 공유하며 지역발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장문화기자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대구의 미래 MZ세대 직원들과 소통공감토크

민선8기 출범 1주년,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맞아 MZ세대 직원과의 화합과 공감대 형성, 시정 비전 공유를 위한 소통과 공감의 장 마련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중심인 MZ세대 공무원들과 솔직담백한 대화를 통해 MZ세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젊은 MZ세대 직원들과 허물없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시정 비전을 공유하고 소통과 공감대 형성으로 상호존중이 넘치는 공식사회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의성군, 영남대 세포배양연구소, (주)마이크로디지털과 다자간 업무협약

김주수 의성군수, '세포배양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바이오 장비 국산화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약속'

의성군은 지난 7일 영남대학교 세포배양 연구소(소장 최인호)와 국내 대표 바이오 부품 및 장치 기업인 (주)마이크로디지털(대표 김경남)과 세포배양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의성군과 영남대 세포배양연구소는 바이오 장비 전문 제조업체인 (주)마이크로디지털과 함께 경북 세포배양산업 지원센터에서 바이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바이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특히 (주)마이크로디지털은 자체 개발한 일회용 바이오리액터 '셀빅'(CELVIC)을 의성군이 운영하는 경북 세포배양산업 지원센터에 교육용으로 지원을 약속했다. (주)마이크로디지털은 2002년 설립되어 일회용 세포배양, 체외 진단, 바이오메디컬, 통합검체 관리 시스템 등 초정밀 광학 기술을 기반으로 시장 트렌드를 선도하며 기술 개발에 매진해 온 기업이다. 정금자기자

# 영주시, 'MOM편한 30인의 아빠단' 직업체험



경북 영주시는 지난 8일, 경북전문대학교에서 '제4기 MOM편한 30인의 아빠단'을 대상으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빠와 자녀가 함께 직업체험 활동을 하며 직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아이들의 적성, 흥미를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해 앞으로의 진로 설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체험은 아빠와 함께 키즈키 체험, 비행기 체험, 기관차 체험 등 장소를 이동하며 각각의 활동을 진행했다. 또, 비행기 에티켓 및 대중교통 이용 시 필요한 공공예절에 대한 교육도 추가로 진행해 직업체험 활동뿐만 아니라 예절에 대해 배우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빠 정 O O씨(39세)는 "아이가 다양한 직업 세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아이의 흥미와 관심사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8일, 경북전문대학교에서 "아빠와 함께 꿈을 찾아 떠나요"

강매영 아동청소년과장은 "아빠와 함께한 다양한 직업체험활동은 향후 진로 선택뿐만 아니라 인성 함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아빠의 적극적인 육아참여와 더불어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4기 MOM편한 30인의 아빠단'은 지난 4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놀이체험 및 스텝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빠와 자녀가 함께 행복한 일상을 공유하며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윤근수/기자

# 봉화군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사업 제8회 시장·군수 협력체 회의 참석

봉화군은 지난 6일, 경북 울진군에서 개최된 제8회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사업 시장·군수 협력체 회의에 참석했다.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는 서산~당진~예산~아산~천안~청주~충청~괴산~문경~예천~영주~봉화~울진을 연결하는 총연장 330km, 약 3조 7천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건설사업이다. 이날 회의에는 13개 지자체 대표자와 담당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해 사업의 추진경과 및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사전타당성조사 착수보고 등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13개 시장·군수 협력체는 중



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사업은 국토 균형발전, 중부권 교통접근성 개선 및 중부권 13개 시·군 발전을 견인할 핵심사업이라는 것에 함께 뜻을 모았으며, 앞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을 모으기로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현국 봉화군수는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는 국가균형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사업이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신규 및 기존 노선의 B/C값을 올릴 수 있도록 13개 시·군이 공동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금자/기자



의성군, 영남대학교 세포배양연구소, (주)마이크로디지털 의성 세포배양산업 육성 및 발전 업무협약 체결식  
일시: 2023. 7. 7(금) 11:00  
장소: 의성군청 영상회의실

### 청송군, 문화인프라 확충'착착'여가활동 UP↑

#### 남관 미디어아트홀 개관식 개최 윤경희 청송군수, "남관 미디어아트홀 개관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생활 속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되길"

청송군은 지난 7일, '남관 미디어아트홀'이 개관하면서 지역의 문화인프라가 한층 더 탄탄해져, 군민과 관광객들이 더욱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청송의 대표적인 문화시설로는 각종 공연과 강연을 위한 대공연장과, 회의를 위한 소공연장, 다목적으로 쓰이는 실내집회장,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체육단련시설 등을 갖춘 '종합문화복지타운'이 있으며, 초대형 한국화 '청량대운도'(46×6.7m)로 유명한 '청송야생미술관', 한국 역사 소설의 지평을 넓힌 『객주』를 테마로 문을 연 '객주문화관', 청송수석꽃돌박물관, 청송백자전시관, 심수관도예전시관, 향일외병기념공원이 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다.

인터랙티브 체험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남관 미디어아트홀'을 지난 6월 완공하였으며, 이에 따라 남관 화백의 수준 높은 작품을 미디어아트라는 현대적인 예술로 남녀노소 누구나, 보다 쉽고, 친근하게 작품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콘텐츠는 ▲남관 화백의 생애와 작품세계를 소개하는 남관 화백 홀로그램, ▲남관 화백의 작품과 그림 기법의 변화를 시대적 흐름으로 표현한 미디어아트, ▲관람객이 직접 남관 화백의 작품을 터치해 보는 상호작용 실감콘텐츠, ▲남관 화백의 화풍을 활용해 문자를 출력할 수 있는 인공지능 키오스크 등 다양하게 구성됐다.

여기에 더해 (재)청송문화관광재단은 부남면 소재 남관생활문화센터 2층에 '남관 미디어아트홀'을 마련하고 지난 7일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청송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인 윤경희 청송군수를 비롯, 많은 내빈들이 참석, 남관 미디어아트홀 개관을 축하했다.

'남관 미디어아트홀'은 청송군 부남면 출신 한국의 대표적인 1세대 추상화가이자, 한국인 최초로 파리 국립현대미술관에 작품이 소장될 만큼 해외에서도 널리 인정받은 남관 화백의 작품을 활용한 인터랙티브 실감형 미디어아트홀로 꾸며졌다.

청송군은 지난해 지역문화활력추진 지원사업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남관생활문화센터 2층 전시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미디어아트 소프트웨어 및

더불어 1층 기획전시실에서는 미디어아트홀에 활용한 작품과 동시대에 작업한 남관 화백의 실제 작품 30여 점을 전시하는 특별전도 10월 6일까지 열려 남관 화백의 수준 높은 작품을 다양한 관점에서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지역민들의 문화 활동 증진을 위해 청송문화관광재단은 남관생활문화센터를 활용한 남관탁구교실, 오픈키친 요리클래스 등 다양한 취미 소양 강좌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남관 화백의 작품을 활용한 미디어아트홀 개관과 특별 전시가 개최됨을 뜻깊게 생각한다." 며 "지역 곳곳에 준비한 다한 시설들과 함께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생활 속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디지털 농업의 미래, 경북 농업대전환4-H가 선도한다!

#### 의식행사와 화합 체육활동 통해 전통성과 협동심 고취 비전선포 퍼포먼스로 청년농업인이 주도하는 경북 농업대전환 성공 결의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지난 5일에서 7일까지 3일간, 울진국민체육센터 일원에서 4-H회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5회 경상북도 4-H 야영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디지털 농업의 미래! 4-H가 만드는 농업대전환!'이라는 주제로 야영대회의 대표적 의식행사인 '봉화식'과 경북 22개 시군 청년농업인들이 함께 협동할 수 있는 체육행사를 통해 지·덕·노·체 4-H이념을 고취하고, 회원 단합의 장을 마련했다.

봉화식에서는 지도자로부터 4-H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는 불씨 전달을 시작으로 지(智)·덕(德)·노(勞)·체(體) 단어가 적힌 LED를 점화해 4-H이념을 되새겼다.

즉구, 불링, 탁구 등 체육행사를 통해 4-H 이념인 '체(體, 건강한 신체)'의 중

요성을 되새기며, 회원 협동심을 배양해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됐다.

또 청년농업인 희망 다짐 퍼포먼스를 통해 디지털 농업의 주역이자 경북 농업대전환을 주도할 청년농업인들이 희망찬 미래 농업 만들기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정흥국 경상북도4-H연합회장은 "경북 4-H가 7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현재까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계기는 의식행사를 통해 4-H이념을 되새기고 회원 협동심을 배양하는 야영대회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며, "시대가 변해도 4-H의 근본 철학과 숭고한 정신은 꾸준히 계승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농업이 첨단산업으로 발전되면서 디지털 역량을 갖춘 청년농업인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라며 "청년농업인 4-H 회원

들이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경북 농업대전환을 이끌어가는 영농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 4-H연합회는 22개

시군 1천170명의 회원이 소속돼 신기술 보급과 지역 봉사활동 등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윤근수/기자



## 권기창 안동시장, 권기익 안동시의회 의장과 수해 현장 방문 '주민 위로·긴급 복구 지시'

#### 권기창 안동시장, "전 행정력 동원해 피해 수습/항구적인 대책 추진하겠다"고 밝혀

지난 7일, 안동 지역에 72mm(풍천 최대 93mm)의 비가 내리며 곳곳에서 사면유실, 도로침수, 나무 도복, 옹벽·축대 붕괴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권기익 안동시의회 의장과 함께 8일 오전 산사태가 발생한 임동면 마령리를 찾아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긴급 복구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7일 저녁 20시 35분경 임동면 마령리 일원에 사면유실이 발생해 흙과 돌이 마을로 밀려와 마을 내 4가구 4명이 마령3리 경로당으로 긴급 대피했다. 시는 흙과 돌을 제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면 복구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어, 권기창 시장은 김호석 안동시의회 의원과 용상동 마을주차장 옹벽 전도 현장을 찾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보완책을 논의했다. 지난 7일 19시 11분 경 용상동 일원 마을 공동주차장 옹벽이 무너지며 하부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 2대가 파손됐다. 시는 장비를 투입해 기울어진 경사면을 신속히 평탄화하고 8일 새벽 00시경 무너진 옹벽과 붕괴 위험이 있는 옹벽을 긴급 철거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하루 속히 평온한 일상이 가능하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 피해를 조기에 수습하고 항구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 '행복을 요리하는 남자!'

## 봉화군가족센터 남성요리교실 프로그램 '성료'



봉화군가족센터에서 진행한 남성요리교실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센터는 지난 달 1일부터 29일까지 봉화군 여성문화회관 조리실에서 5회에 걸쳐 봉화군에 거주하는 남성을 대상으로 '남성요리교실 - 행복을 요리하는 남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양한 연령대의 관내 남성들이 요리 활동을 통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추후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내게 되었을 때도 가정에서 쉽게 요리를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생활 음식 위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구성했다.

특히 참가자들 남성요리교실 프로그램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가정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 음식인 닭갈비, 낙지볶음, 잡채, 소불고기, 떡갈비

등을 만들면서 자신의 요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가족 행복감을 증진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남성요리교실에 참가한 한 교육대상자는 "이번 남성요리교실에 참여해 요리 기술을 배우면서 요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가정에서의 요리 활동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이 됐으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다."라고 말했다.

봉화군가족센터 관계자는 "남성요리교실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의 요리 활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가족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고 추후 혼자서도 가정에서 쉽게 요리를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개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정금자/기자

## 국민의힘 당원협의회, 울진군에 1,000만원 기부

#### 손병복 울진군수, "기부받은 성금, 뜻깊게 사용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울진군은 지난 4일 국민의힘 영주, 영양, 봉화, 울진지부의 당원협의회가 모은 성금 1,000만원을 전달받았다.

국민의 힘 당원협의회는 이날 울진군청을 방문하여 당원들이 지난 2022년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울진군 복지사각지대 및 저소득층을 위해 모은 성금이라며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해 소중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기부받은 성금이 뜻깊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장문화/기자







# 경북도, SMR 소부장 산업생태계 구축에 한국재료연구원 '맞손'

### SMR 소부장 강화 위해 최고 기술력 보유한 한국재료연구원과 MOU 소형모듈원자로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협력 SMR 제작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SMR 기업지원 및 유치기반 마련

경북도는 지난 7일, 도청에서 경주시, 한국재료연구원과 SMR 소부장 산업생태계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원자력 소부장 관련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글로벌 종합소재연구기관인 한국재료연구원이 참여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3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형모듈원자로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소형모듈원자로 제작지원을 위한 기반구축 △소형모듈원자로 공인 인증체계 개발 및 테스트베드 구축 △전문인력 양성 △한국재료연구원 경북센터 설립 등 SMR 소부장 산업거점 마련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미 경북도는 SMR 연구개발과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내 독자 모델인 혁신형 SMR 등 차세대 원자로 핵심기

술 개발을 담당할 문무대왕과학연구소를 경주 감포에 유치했고, 현재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공사가 한창이다.

또 지난 3월 정부의 지역 첨단산업 거점 마련을 위한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에 경주 SMR 국가산단이 최종 선정됐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개발사업자로 선정하고 연내 예비타당성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12대 국가전략기술에도 포함된 SMR은 전 세계 71종이 개발 중이며, 발전과정에 탄소배출이 없고 안전성이 대폭 강화되어 탄소중립시대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향후 2035년 기준 세계시장 규모는 6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가올 SMR 시장선점을 위해서는 SMR의 경제성 확보가 관건이며, 복잡한 내부 기자재 구조와 모듈화 된 설계

등 제작 특성을 감안할 때 로봇용접, 3D 프린팅 등 혁신제조기술을 적기에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경북도는 한국재료연구원과 손잡고 경주 국가산단 내 SMR 제작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혁신제조기술을 활용한 SMR 제작기반을 마련하고, 제작기술 표준화를 위한 SMR 혁신기술 인증센터 및 테스트베드를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등 SMR 소부장 산업생태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향후 문무대왕과학연구소에서 우리 기술로 개발된 SMR이 경주 국가산단에서 만들어져 세계시장으로 팔려나갈 것이며, SMR 소부장 산업생태계 구축으로 경북 원자력 3.0시대를 확실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대구 북구 간부 공무원 "연고주의는 영원히 안녕" 청렴 다짐 릴레이 참여

대구 북구청장은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참모로 이어지는 '연고주의는 영원히 안녕' 청렴 다짐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했다.

대구 북구청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연고주의는 영원히 안녕'이라는 주제로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했다.

'연고주의는 영원히 안녕'은 연고주의를 사람으로 의인화하여 이별하는 내용으로 구청 직원, 공무원 노동조합, 간부 공무원들의 참여로 학연, 지연 등 연고주의를 거부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를 다짐하는 계기를 확산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 캠페인은 2023. 7. 7 배광식 북구

청장 집무실에서 직원들과 함께 연고주의를 북구에서 영원히 떠나보내는 퍼포먼스로 마무리됐고, 연고주의를 뿌리 뽑아 더욱더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웹툰 형식으로 제작하여 간부 및 소속 직원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북구청 간부 공무원들은 솔선수범하여 다양한 형태의 반부패·청렴 캠페인을 실시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청렴도 1등급을 굳건히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연고주의로 인해 민원인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고, 또한 우리 조직 내에서도 연고주의나 사적 이해관계로 업무가 처리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동현/기자



## 부산근현대역사관, '부산과 기록' 프로그램 운영

### 7.21.~8.25. 매주 금요일, 총 6회에 걸쳐 별관 프로그램 '부산과 기록' 개최

부산근현대역사관은 오는 7월 21일부터 8월 25일까지 매주 금요일, 별관 1층에서 '부산과 기록'이라는 주제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근현대사 발굴 및 축적에 있어서 중요한 민간 기록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환기하고, 기록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록 활동 사례와 방법을 제공하고자 실시된다.

부제는 '도시를 기록하는 방법'이며, 기록가 건축가·사진작가의 강연과 현장 답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총 6회차로 진행되며, 크게 기록 활동의 중요성과 원도심 역사에 대한 강연, 건축 도면 및 도시 사진을 통한 기록 사례 강연과 현장 답사로 구성됐다.

1회차는 '우리가 도시 기록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강연으로 진행된다. 강연은 각종 기록화 사업과 민간기록자 교육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록전문가 배은희 대표(기록 전문 업체 '빨간집')가 맡았다. 배은희 대표는 7월 21일 첫 강연을 통해 민간 주도 기록의 중요성과 다양한 사례를 전할 예정이다.

2회차는 도시 답사를 통해 부산의 지역성을 밝힌 단행본 『건다가 근대를 생각하다』(2020, 김동규 공저)의 저자인 건축가 홍순연의 강연으로 부산 원도심의 역사를 살펴본다.

3-4회차에는 부산 근대 건축물에 대한 기록 성과에 초점을 맞춘 강연과 실제 원도심의 건축 답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황수환 건축가의 인솔하에 현장에서 실제 벽돌의 크기나 축대의 높이 등을 측정하고 그려보며 근대

부산의 옛 풍경과 시민들의 삶을 유추하는 시간을 갖는다.

5-6회차는 1980-90년대 격동기 부산 현대사 기록이라는 주제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사진작가 문진우는 1980년대 남포동 일원을 담은 사진 40여 점을 선보인 '남포동 블루스' 전시를 통해 현대사 격동의 공간이었던 남포동, 광복동 등 부산 원도심의 문화와 시대상을 조명할 바 있다. 사진을 통해 도시를 응시하는 작가의 시선과 사진 작업에 대한 작가의 철학과 소명 의식을 만나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부산의 도시 기록가를 길러내기 위한 첫 단추 역할을 한다. 향후 지속적으로 도시 기록 활동을 수행할 지역 청년 및 예비 기록가를 모집하기 위해 사전 접수 이후 추가 선정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1차 신청 접수는 지난 7월 3일부터 7월 16일까지 부산근현대역사관 누리집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마감 이후 개별 접수자의 참여 동기, 활동 이력 등을 수렴·검토해 최종 수강생 2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강연으로 진행되는 1-3회차 및 5회차는 정식 수강생이 아니라도 당일 현장 접수(선착순 20명)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부산근현대역사관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앞으로 민간 기록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기획·운영할 것"이라며, "평소 도시와 역사, 시민의 생활한 삶의 모습, 일상의 기억을 기록하는 일에 관심 있는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송종진/기자

## 통영RCE세자트라숲, 2023 코리아 유니크 메뉴 선정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이 운영 중인 통영RCE세자트라숲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시행한 '2023 코리아 유니크 메뉴' 인증공모사업에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마이스(MICE: 국제회의, 기업, 관광, 전시) 목적지로서 한국의 차별화된 매력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국제회의 명소를 '코리아 유니크 메뉴'로 지정해 MICE 행사 유치·개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통영RCE세자트라숲은 이번 공모신청에 서면과 PPT발표 및 현장 실사 등 엄격한 3차 심사를 거쳐 경상남도에서 유일하게 신규 지정됐다.

특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코리아 부분과 이색적인 장소를 뜻하는 메뉴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선정기준에서 △10명 이상 행사가능 회의공간, 상시대관 및 외부 음식 반입 가능, 회의용 영상 및 음향시스템 등, 주차시설 등의 시설여건 △독특한 컨셉 및 스토리, 매력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매력적이고 이색적인 공간



도, 지역적 정체성 보유 여부를 평가하는 차별성 △접근성, 관광지, 숙박, 음식점 보유 여부 등 관광연계성, △자체 홍보채널, 예약 및 안내 시스템 보유 여부, 사업의지, MICE 행사 유치 경험 등의 마케팅 능력을 평가했다.

앞으로 통영RCE세자트라숲은 MICE 산업 전문가 컨설팅 제공, 시설 개선, 다국어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통영시 용남면 선촌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통영RCE세자트라숲은 지속가능발전 교육과 연구개발, 지역연대 네트워크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이다.

전 인류의 과제인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현재와 미래세대 공존의 가치를 배우고 이를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 교육터로, ESD국제포럼과 유네스코 심포지엄 등 각종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도 갖추고 있다.

이용준/기자

## 사천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종합부문 우수기관

경남 사천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제15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평가'에서 종합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시는 서울 The-K 컨벤션센터에서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한 2023년 지방자치단체 합동 성과대회와 함께 열린 시상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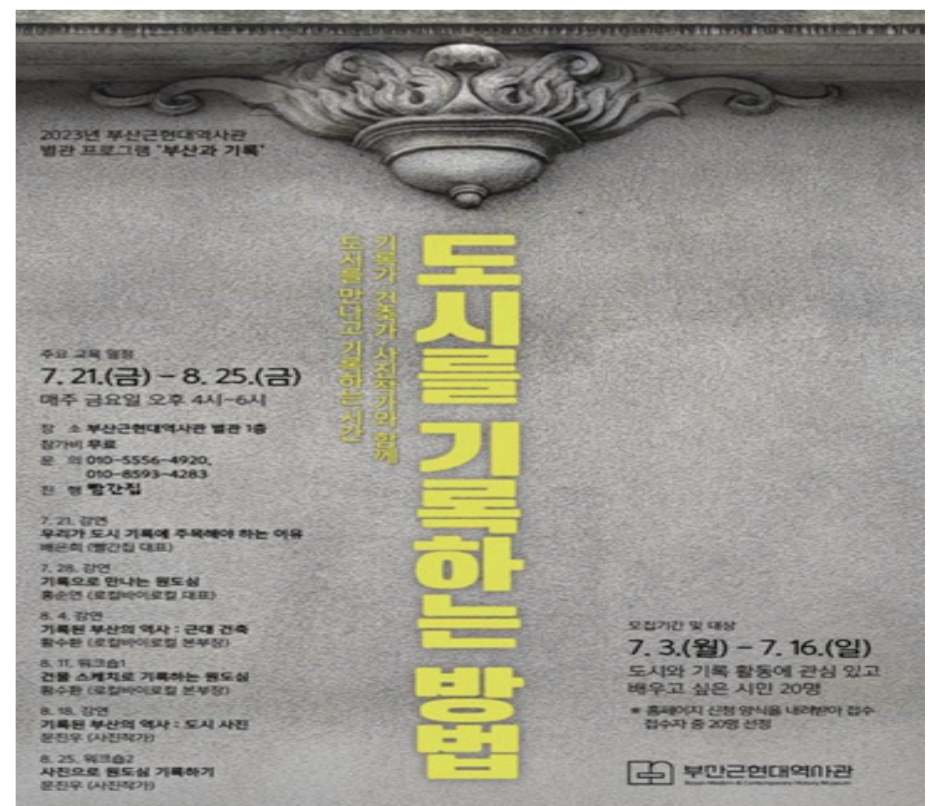
시는 다양한 특성과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생애주기별·생활터별 맞춤형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시민 건강증진사업 체감도 향상과 건강행태 개선에 힘쓰고 있다.

또한,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축소됐던 건강증진사업의 정상화와 취약계층 돌봄 강화를 목표로 대면 방식의 찾아가는 건강증진사업을 재재정비했다.

특히, 그동안 건강증진사업에서 소외됐던 젊은 세대를 위해 대면&비대면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추진하는 등 비대면 방식을 강화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신규사업을 개발하고 지역 사업장·병원 등과의 연계를 통한 알찬 건강증진사업 운영으로 시민 모두가 건강한 행복도시 사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준/기자









# 박경귀 아산시장, 한울중·온양고 학생들 초대해 특별한 만남

## 아산시, 새 소통 강화 시책 '시장실 개방의 날' 시작

아산시청 시장실에 특별한 손님들이 방문했다.

아산시는 6일 온양한울중학교 학생회와 온양고등학교 1학년 학생 35명을 시청으로 초청해 시장 정책 과정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날 초청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기초단체장의 업무공간인 시장 집무실과 기자회견 장소로 활용되는 브리핑룸, 간부회의가 진행되는 상황실 등을 시민에 공개하는 '시장실 개방의 날'의 첫 행사로 추진됐다.

첫 대상자인 청소년들은 언론 브리핑룸에서 아산시의 주요 사업과 시의 역할을 소개하는 영상물을 관람한 뒤, 시장실로 이동해 박경귀 시장과 만나 대화를 나눴다.

학생들은 박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교천이 너무 예쁘게 물은 깨끗하지 않은 것 같다', '성악 하는 친구가 있는데, 아트밸리 아산이 시작되고 난 뒤 지역 예술인들이 설 수 있는 무대가 오히려 줄었다고 아쉬웠다', '시장 임기가 끝나면 뭘 하고 싶냐' 등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박경귀 시장은 "학생들의 날카로운 질문을 받고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그만큼

아산시의 미래가 밝다는 생각에 반갑고 기쁜 마음이 더 컸다"면서 "즐거워 당혹스러움이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간담회를 마친 학생들은 아산시 국장급 간부들이 매주 진행하는 '간부회의'를 가상으로 진행하며, 아산시 각종 현안이 논의되는 과정을 체험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오늘 시청 방문이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키우고, 내가 살고 있는 아산시의 시정이 어떻게 결정되고 운영되는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계기가 됐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실 개방의 날'은 시청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여 공감과 소통의 시정을 실현하기 위해 준비한 소통 강화 시책"이라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이 관공서를 어렵고 딱딱한 곳으로 여기지 않고, 시청과 시청, 시장을 가깝고 편안하게 느끼고 소통할 수 있도록 더 다양한 소통의 기회를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오는 10월 시민의 날에도 '시장실 개방의 날'을 추진하는 등, 더 많은 시민에게 시장실 방문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원호/기자



## 한글문화도시 세종 '우리말 지킴이' 활동 나서

### 지난달 '우리말 지킴이'발족...세종시민 10명 구성

한글문화활동으로 '한글문화수도 세종'을 알릴 '우리말 지킴이'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세종특별자치시는 한글진흥 사업 보조사업자인 고려대학교 세종 국어문화원의 공개모집을 통해 지난달 '우리말 지킴이' 10명을 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전원이 세종시민으로 구성된 우리말 지킴이는 앞으로 관내 공공언어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제안하는 등 한글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게 된다.

세종 국어문화원 배준영 교수가 지도하는 우리말 지킴이는 7일 시청 책문화

센터를 찾아 청사 내 공공언어 사용실태를 확인하고 시 관계자와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다.

우리말 지킴이의 한 단원은 "세종시의 한글사랑 정책에 관심을 가져 지원하게 됐다"라며 "우리말을 아끼고 지켜나가는 활동을 통해 큰 보람을 느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올해 10월까지 활동이 예정된 '우리말 지킴이' 단원들은 매주 1회 모여 ▲다듬은 말 사전 편찬 ▲한글 경조사 봉투 기획·제작 ▲한글날 기념행사 참여 등 논의를 갖고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최정근/기자



# 충남도 '청년이 원하는 정책' 함께 만든다

## 도, 청년 종합실태조사 중간결과 공유 및 청년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충남도가 도내 청년들과 함께 맞춤형 청년 정책 발굴을 위해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홍 지사를 비롯해 실국장, 청년단체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의 정책 발굴을 위해 지난해 12월 착수한 '충

청남도 청년 종합실태조사' 중간결과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토의 및 의견수렴 등 순으로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먼저, 도내 청년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관계참여 등 청년의 삶 전반에 대한 온·오프라인 실태조사 중간 분석결과를 공유했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일자리 분야는 고등학교 입학 직후부터 일경험

통·교류 등 네트워킹 지원(45.7%)을 가장 많이 응답했다.

이어진 정책 간담에서는 실태조사와 관련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겪는 청년층의 어려움, 개선방안 등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는 실태조사 최종 분석결과를 토대로 관련 부서, 전문가, 청년위원 등이 참여하는 '청년정책 발굴 전담팀(TF)'을 운영해 분야별 신규·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출생자 감소 등의 사유로 도내 청년인구가 지속 감소를 보이고 있다"며 "청년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정책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해 '청년이 살고 싶어, 찾고 싶어, 머물고 싶어' 충남'을 조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처한 현 시대가 녹록지 않지만 좌절하고, 포기하기 보다는 열정·도전·희망을 갖길 기대한다"고 응원하며,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기회가 넘치는 충남을 조성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올해 초 청년 전담조직으로 '청년정책관'을 신설하고, '청년이 살기 좋은 충남 조성'을 목표로 5대 분야 123개 사업에 1839억원을 투입한다.

최정근/기자

## 김영환 충북도지사 중부자바주에서 유학생 유치를 위한 광폭행보

중부자바주를 방문중인 김영환 도지사는 7일 오전 중부자바주 직업훈련 학교를 방문하여 인도네시아 직업학교 학생들의 도내 유학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첨단산업이 집적되어 있는 충청북도에 많은 기업들의 인력수요가 상당하고 또 충북도 내 농가의 일자리 부족을 감안한다면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도내 대학에서 수학하며 아르바이트를 병행하여 큰 경제적 부담없이 학업적 성취를 이룰 수 있음을 설명하여 아지즈 학장 등 참석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김영환 지사는 "중부자바주 내 거주하는 가정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을 선발하여 기숙사를 제공하며 교육을 시키고 중국등지에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 K-팝, 드라마, 영화 및 푸드 등으로 대표되는 한류 열풍을 감안한다면 중국 등으로 나가는 유학 수요를 충청북도 내로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며 "중부자바주 및 관련 대학,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자바주에는 한국에서 진출한 봉제, 의류, 신발 등의 전통산업 분야와 이차전지 분야의 LG에너지솔루션 등 첨단산업기업이 300여개 이상 진출해 있어 중부자바주 내 고용창출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간자르 주지사도 중부자바주 내에서 일자리 창출의 일등 공신인 한국기업에 대한 커다란 관심을 표명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지사 일행은 많은 한국기업이 입주해 있는 켄달산업단지를 방문하여 단지 인프라, 인력 수급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했다. 우리도 소재 오창산업단지와 규모가 비슷한 켄달산업에는 3천명 이상 고용하는 한국기업이 소재하고 있어, 한국기업 소요 인력 공급을 위해 현지한인회에 직업학교 학생 대상의 한국어 교육도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영환 지사의 이번 직업학교 및 켄달산업단지 방문은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고용률과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의 초과적인 조달 측면에서 중부자바주와 서로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윈윈관계를 모색하고 현장에 적용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이번 방문을 통해 인도네시아 학생들에게 학업과 근로를 병행하여 충북에서 공부하고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도 내 기업, 농가에선 한 손이라 두 아쉬운 일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지역은 이들의 소비가

국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김 지사는 중부자바주 체한 한인회장에게 충청북도 명예대사위원

고정화/기자



## 천안시, 시민 청소년과 함께 성장하는 '천안시청소년재단'창립총회

### 올 10월 출범을 목표로 창립총회 개최해 임원 임명장 수여

천안시 청소년을 위한 정책개발과 청소년 권리증진, 문화·복지 지원, 청소년 시설 운영 등 청소년 업무를 총괄할 '천안시청소년재단'이 올 10월 출범할 전망이다.

천안시는 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천안시청소년재단 창립총회 및 임원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창립총회는 재단 이사장인 박상돈 천안시장을 비롯한 재단 이사 8명, 감사 2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임명장 수여, 재단 소개 등을 진행했다.

시는 그동안 재단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도 출연기관 설립 협의 등 청소년재단 설립을 준비해 왔고 지난해 11월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 4월에는 재단설립의 첫걸음인 설립발기인 총회를 개최해 재단의 정관을 제정했으며 이후 공개모집으로 임원(이사, 감사)을 선출했다.

시는 7월 중 충청남도에도 천안시청소년재단 설립 승인을 요청하고, 다가오는

9월 대표이사사와 사무국 직원 채용, 올해 10월에 청소년재단을 정식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청소년재단은 위탁 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인 2024년부터 천안시청소년수련관, 태조산청소년수련관, 성정청소년문화의집, 천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편입해 운영하게 된다.

또 청소년정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청소년정책을 지원하고, 청소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휘부(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재단 이사장인 박상돈 천안시장은 "청소년재단을 통해 천안시 청소년이 더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정책적 여건을 확대하겠다"며, "디지털시대를 선도하고 미래 핵심역량 인재로 성장할 청소년들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 이상의 함평군수 취임 1주년... "더 새롭고 더 잘사는 함평 실현"

## 공약이행률 30%...본예산 5천억원 시대 개막 실감형 콘텐츠 도입·체류형 관광지 도약 앞장



'새로운 도약, 희망찬 함평'을 기치로 군정을 운영 중인 이상의 전남 함평군수가 민선 8기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지난 1년간 이 군수는 '군민이 잘 사는 함평', '기업하기 좋은 함평', '혁신적인 체감행정 실현' 등을 목표로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숨가쁘게 뛰어왔다.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지금보다 더 새로운 함평군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민선 8기 취임 1년 만에 공약이행률이 30%를 기록, 손조롭게 군정을 운영하고 있다. 분야별 이행률은 문화·관광·체육 41%, 보건·복지 37%, 교육·행정 32%, 지역경제 31%, 농축수산업 26%, 교통·SOC 13%이다.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 도약 '앞장' '축제의 고장'으로 이름난 함평군은 기존 '나비대축제'와 '대한민국 국향대전' 등 한시적으로 개최하는 지역 축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체류형 관광'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실감형 관광 콘텐츠를 적극 도입했다. AR(증강현실)과 인터랙티브 미디어를 활용해 '자연생태과 학관'을 새단장했으며, 엑스포공원 내 VR체험장을 운영함으로써 VR(가상현실) 12종, AR 2종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또한 나비대축제 기간 중 '미디어 파사드'를, 국향대전 기간에는 '드론라이트 쇼'를 통해 야간에도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해 호평받았다.

또한 체류형 관광자원을 확충하기 위해 들머리오토크캠핑장, 주포한옥마을 민방 등 자연친화 숙박시설을 활성화했다.

특히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먼저 칸타타골프리조트(주)는 720억원을 투입해 해보면 금계리 일원(962,860㎡)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칸타타골프리조트(주)는 골프 인구 저변 확대에 발맞춰 골프장 조성을 통한 12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함평엘리체컨트리클럽(주)는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 인근(학교면 곡창리)에 84실 규모의 숙박시설, 골프연습장, 대형 수영장 등 시설 확충에 6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숙박시설 확충을 통해 60여 명의 신규 고용 창출은 물론 함평군이 역점으로 추진 중인 체류형 관광기반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 군수의 대표적인 혁신행정 운영 사례로 꼽히는 '함평 자동차극장'은 인근 지역민들로부터 문화 명소로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전라남도 세외수입 창출 우수사례, 참 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누렸다.

◇농촌 정주환경 개선·축산물 가공 유통 활성화 기여 함평군은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군민이 대부분인 만큼, 농업인을 위한 환경 조성에도 박차를 가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농림축산식품부와 시·군 간 협약을 통해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연계·복합화를 추진하는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해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학교면·나산면 기초생활거점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대동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농촌공간 정비사업 공모에도 선정되어 오는 2027년까지 신광면 동정리 일원에 180여원(국비 90억, 도비 27억, 군 63억)을 들여, 주거단지 조성 및 유해시설 철거, 마을공동시설 정비 및 마을 도로 등 각종 환경정비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2024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함평읍 백년마을과 월야면 덕산마을이 선정되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두 마을에 각각 21억원, 1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



된다. 공모사업 선정으로, 마을 주택 정비, 슬레이트 지붕개량, 마을 환경 개선, 휴먼케어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아울러 함평 축산물의 가공과 원활한 유통을 전담하는 '함평축협 축산물 유통센터'를 준공, 축산물의 비대면 유통과 밀키트 생산의 설비를 갖추게 됐다.

센터는 연간 한우지육 5천마리, 곰탕 등 가공품 일일 4천팩 생산이 가능한 최신 설비는 물론, 함평천지한우를 활용한 가공식품을 생산·유통한다. 또한 1인 가구 증가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밀키트 산업 확대에 발맞춰 소불고기, 밀피유나베 등 고급화된 밀키트를 선보일 계획이다.

아울러 함평축협은 전국 최초로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를 유치했다.

센터를 통해 저메탄 조사료 생산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한우농가의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과 지속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올해 준공을 목표로 하는 이 센터에는 국비 54억원을 포함한 180억원이 지원된다.

◇군민이 안전한 고향·따뜻한 복지사회 실현 함평군은 군민 안전망 구축을 위해 재난 예방사업을 추진했다. 함평읍, 학교면, 월야면의 침수대응사업(695억)과, 신광면·해보면 일대 자연재해 위험개선 지구사업(502억), 내교·기각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436억) 등이다.

또한 모두가 잘 사는 함평을 만들기 위해 희망복지 시책을 확대했다. 먼저 지역 출신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 장학금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지역구분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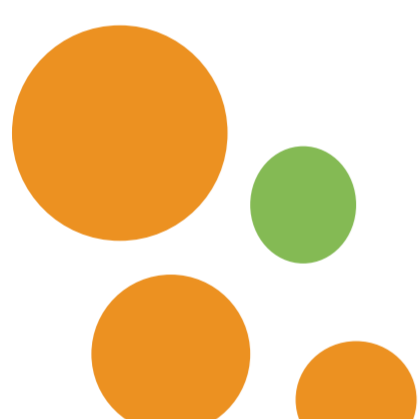
교통 불편지역 주민들의 발이 돼주는 '100원 행복택시'는 기존 59개 지역에서 74개 지역으로

운영지역을 확대했으며, 보수수당 지원액 또한 기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700만원, 넷째아 1천만원을 지원하며 연간 6억원의 양육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보건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건강증진형 월야보건지소를 신축하였으며, 감염병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감염병 관리센터 증축을 추진 중이다.



## 새로운 도약 희망찬 함평



◇변화 이끌어 낼 미래 성장 기반 구축 먼저 함평군은 민선 8기 도약을 위한 탄탄한 기반을 마련했다. 6대 분야 59개 사업에 5천151억원을 투입하는 민선 8기 공약을 확정했다. 특히 빛그린산단을 자동차산업 중심지로 조성하고 농축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체류형 관광도시를 조성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또한 2023년 군 예산은 5천119억원으로, 군정 최초로 본예산 5천억원 시대를 열고 정부에



함평축협 축산물유통센터기공식  
2022. 1. 28. 함평축협운영조직

산 1천814억원을 확보하면서, 국고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해 현안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 등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함평비전 203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함평군이 나아가야 할 미래 비전과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 고용노동부, 중국 등 해외IP에서 워크넷 무단접속, 개인정보 유출 발생

## 크리덴셜 스테핑 수법으로 워크넷 로그인 시도

한국고용정보원은 7월6일 15시 현재 중국 등 해외IP(28개)에서 23만여건의 워크넷 무단접속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즉시 ①공격의심 IP 접근차단, ②로그인 시 기존 비밀번호 변경, ③로그인 보안강화를 위해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외에 성명 추가, ④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조치를 시행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워크넷 사용자 계정의 암호는 일방향 암호화\*되어 있어 워크넷 자체 해킹을 통한 계정 유출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다른 곳에서 수집한 사용자 정보(아이디/암호)를 워크넷에 마구 대입하여 로그인을 시도한 소위 '크리덴셜 스테핑' 수법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유출된 것은 워크넷 이력서 항목으로 성명, 성별,

출생연도,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학력, 이메일, 경력 등의 정보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최우선적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①유출피해 대상자 개인별 알림톡(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과 ②워크넷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공격 내용, 암호변경 권고 등을 안내하는 한편, ③한국고용정보원 내에 별도 민원 대응팀을 운영하여 신속히 대응하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도 민원대응 Q&A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워크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④최초 로그인 시 암호변경 후 로그인이 되도록 하고, ⑤아이디/암호 외에 본인 인증을 위한 추가인증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⑥고용보험, HRD-Net 등 다른 고용정보시스템에 대한 점검도 확대하

기로 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현재 정확한 원인 분석과 피해규모 파악에는 2~3주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밝히면서 "이번 공격의 주요 타겟이 여러 사이트에 동일한

아이디/암호를 사용하는 이용자인 만큼, 주기적인 암호변경과 사이트별 다른 암호사용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이용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 특허청, WIPO와 협력 강화로 한국 출원인 편의 향상 기대

## 이인실 특허청장, 제네바에서 다렌 탕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과 양자회담

이인실 특허청장은 7월 5일 11시(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다렌 탕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과 특허청-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간 인력교환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양자회담을 가졌다.

[특허청-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간 인력교환 업무협약 체결]

양측은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 접견 시 탕 사무총장이 제안한 특허청-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간 인력교환 프로그램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 협약은 내년 상반기부터 특허청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인력을 상호 파견해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으로, 회원국 중 첫 번째로 시행되는 인력교환 프로그램이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전문가가 한국에 파견되면 국제특허출원(PCT) 세계 4위인 한국의 기업들이 시간제한 없이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향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지역사무소 한국 유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한국인 전문가가 파견되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발전한 한국의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도국 지원 강화-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중점 추진사업 협력]

양측은 한국의 지식재산을 활용한 경제발전 경험과 비결(노하우)을 공유해 개도국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등에 협

의했다.

탕 사무총장은 특허청이 한국신탁기금을 통해 개도국과 선진국 간 지식재산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한 것에 감사를 표하며, 향후 한국과 협력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한국의 청소년 발명교육(한국형 모형), 국가 지식재산전략 수립, 지식재산 금융 등의 경험을 공유해 세계지식재산분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내 한국인 전문가 진출-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측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중점 추진사업의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이 청장은 탕 사무총장의 청년, 여성,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지원 정책을 높이 평가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첨단기술과 지식재산 관련 논의 참여 등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청장은 특허-기술 분야를 담당하는 리사 조르겐슨 사무차장, 지식재산(IP)-혁신 분야를 담당하는 마르코 알레만 사무차장보와도 면담을 갖고, 디지털 시대에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영업비밀 백서 발간과 지식재산 금융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국 출원인에 대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서비스가 크게 향상되고, 향후 한국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내 지식재산에 대한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광수/기자

# 행정안전부, '데이터분석 콜센터' 원스톱 지원으로 정부혁신 속도 높인다

## 통합데이터분석센터, 올 3월부터 범정부 상시 분석지원서비스 운영

<b>데이터 분석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데이터 분석 의뢰 상담모델 지원</li> <li>② 상시분석(긴급현안, 수시 분석, 협업과제 등)</li> <li>③ 데이터 분석 모델 개발 및 최적화 등 기술지원</li> </ul>
<b>분석시스템 제공</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맞춤형 분석환경 및 도구 제공</li> <li>② 분석모델, 사례 공유, 사용 매뉴얼, 온라인 자동분석 등 서비스 제공</li> </ul>
<b>맞춤형 역량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신규 역량진단 지표 적용 관련 온라인 진단서비스 제공</li> <li>② 수요자 중심 역량교육</li> <li>③ 분석·역량 컨설팅단 운영 등</li> </ul>

데이터 중심의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분석 기획부터 활용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비스가 활성화되며 주목받고 있다.

데이터분석과 관련한 속도감 있는 맞춤형 지원으로 정부의 일하는 방식개선은 물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품질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지난 3월부터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

해온 '데이터분석 콜센터'가 300건 이상의 분석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데이터분석 콜센터'는 데이터분석과 관련된 질의, 긴급현안 분석, 모델 현행화를 비롯한 기술지원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상시 통합지원 서비스 체계이다.

상반기 중 서비스된 300여 건 중 250여 건의 질의 사항은 상담 과정에서 대부분 즉시 해결됐고, 50여 건의

긴급현안 분석 및 기술지원 요청 사항은 중요도와 시급성을 고려한 전문 분석으로 이어져 정책 활용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요청한 '법정민원 및 보조금 24 대상 구비서류 분석'과 경기도 양주시에서 요청한 '지역내 불균형 실태분석' 등의 과제는 분석 결과가 기관에 제공되어 실행과제 기획과 낙후지역 개선사업 추진 과정에 활용됐다.

지하철 인파사고 예방과 관련, 서울교통공사가 시급히 요청한 '지하철 승강장 혼잡도 분석'의 경우, 현재 서울지하철과 김포골드라인을 대상으로 방대한 양의 교통 데이터분석을 시행 중이다.

행안부는 8월까지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혼잡도 분석모델 개발을 마치고 하반기 중 현장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그간 행안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가 보급했던 분석모델 126종에 대한 현장 최적화 작업과 기술지원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2020년에 개발된 '해충 발생 예측 및 방역 최적화' 모델은 서울 광진구와 울산 중구의 수요를 반영하여 분석단위 정밀화 등 지역별 환경에 맞는 분석모델 최적화 서비스가 이루어졌다.

행안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앞으로도 전문 분석역량, 분석플랫폼, 역량개발 분야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각 기관이 데이터 분석 기획-실행-활용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데이터분석 콜센터를 포함하여 데이터분석·활용에 필요한 기반시설(인프라)과 전문성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 농업인·국민과 함께하는 100년 농협

**유통 혁신**

'올바른 유통위원회, 출범을 통한 유통 구조 혁신과 함께 수급예측 정보시스템 구축 농협을 경쟁력 강화로 농 축산물 유통 대변화'

**디지털 혁신**

농업인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통합 플랫폼 개발과 디지털 농업 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 농촌 지능화 등 디지털농업 강국 실현

**조직문화 혁신**

조직 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과 '경청'을 실천하고 창의적 생각을 존중하여 자유롭게 소통하는 유연한 조직문화 정착

# 경북과학고, 대한민국 과학교육의 표준으로 거듭난다

###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이전 기념식 개최

## 임종식 교육감, "30년의 시간동안 내실을 다진 경북과학고가 이전을 계기로 4차 산업 시대 세계를 향해 도약하고 한국 미래를 이끌어 주길"바라



경북교육청은 지난 7일(금), 신축 이전한 경북과학고등학교에서 내빈과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전기념식을 가졌다.

지난 1993년 개교 이래 1,000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한 경북과학고등학교는 학교 부지 협소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제약, 실험·실습 공간 부족, 시설 노후화에 따른 교육환경 열악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학교 이전을 추진해 2020년 11월 착공을 시작으로 2023년 5월 이전사업을 완료했다.

포스트 인근(포항시 남구 지곡동 산 22-5번지)에 조성한 경북과학고등학교는 부지면적 32,630㎡, 연면적 15,803㎡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

로 건물 2동(교사동, 생활관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과학을 상징하는 원자가 결합한 분자구조를 모티브로 인본주의적 인재육성 의지가 반영된 따뜻한 경북교육을 위해 사람 인(人) 형태를 건물에 디자인해 혁신적인 공간을 구성했다.

또한 최첨단 장비와 시설, 포스트 및 첨단 연구단지를 활용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도 가지게 되었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난 30년의 시간을 통해 내실을 다진 경북과학고등학교가 이번 이전을 계기로 끊임없는 성장을 거듭해 4차 산업 시대 세계를 향해 도약하고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활발한 '수업 나눔'으로 학생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다 전남교육청, 전문적학습공동체 내실화 방안 포럼 운영

교사들 간 수업 나눔·성찰을 통해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 힘을 쏟는 '전문적학습공동체' 교원들이 운영 5년 차를 맞아 내실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전라남도교육청은 7월 7일 보성다비치콘도에서 '학생의 배움과 성장, 학교 문화 혁신의 시작은 전문적학습공동체다'를 주제로 23명의 각 시군 교원을 대상으로 포럼을 열었다.

전문적학습공동체는 현장의 교사들이 수업을 함께 공유·연구하는 취지로 2019년 운영돼 5년 차를 맞는다. 교사들이 '고립된 교실'에서 벗어나 동료 간 탄탄한 협력을 맺고, 나아가 수업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는 교원공동체다.

이번 포럼은 2023학년도에 총 2,070팀이 선정돼 활동하고 있는 만큼, 수업나눔 문화를 정착시키고, 공동체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협의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등 질적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 수업 나눔·성찰 문화 정착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방안 △ 전문적학습공동체 내실

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성과 공유 방안 △ 자발적 참여 제고를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 지원 방안 등을 주제로 한 발제가 진행됐다.

이날 발제를 한 수석교사는 "수업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교사들 간 수업 관찰과 적극적인 평가가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며 "교실의 '벽'을 허물어 교사들이 수업 고민과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감으로써 동반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여자들은 △ 수업 나눔의 날 지정 △ 전문적학습공동체 대표자 네트워크 구축 △ 대표자 역량 강화 워크숍 추진 △ 우수사례 공유 방안 다양화 △ 학교관리자의 지원 강화 등을 내실화의 과제로 꼽았다.

정선영 중등교육과장은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고, 교사들이 함께 연구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전문적학습공동체의 내실 있는 운영이 중요하다."며 "수업 나눔·성찰의 문화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번 포럼에서 나온 귀한 의견들을 내년 지원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 경북교육청,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1억 3천 2백만 원 기탁

## 따뜻한 사랑모아, 희망나눔 캠페인 성금 전달식 가져 임종식 경북교육감,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보살핌과 배려로 아이들이 행복한 경북교육 만들겠다"고 밝혀

경북교육청은 지난 6일(목), 봉천 접견실에서 '따뜻한 사랑모아, 희망나눔 캠페인'으로 모금된 1억 3천 2백만 원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 모금은 코로나19의 여파로 큰 피해를 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달 1일부터 6월 21일까지 경북도내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모금 운동을 펼쳐 1억 3천 2백만 원

을 모금했다.

모금된 성금은 각급 학교에서 추천한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청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 후 9월 초 지급할 예정이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코로나19 여파로 모두가 어려워진 시기에 성금 모금에 적극 동참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며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보살핌과 배려로 아이들이 행복한 경북교육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청송 진보중고, 매직 컨설팅 흡연 예방 교육

## 지난 7일, 학교 호연관에서 학교흡연예방활동



지난 7일 진보중고등학교(교장 임영호)는 학교 호연관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매직 컨설팅 흡연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매직 컨설팅 흡연 예방 교육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마술과 흡연 예방 교육을 접목해 청소년들이 흡연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오프닝 공연으로 비둘기, 손수건, 꽃 등 마술을 펼치며 학생들의 시선을 한국으로 모을 수 있는 아이스브레이크형 마술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강의 중간에 마술을 접목시켜 담배에 대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내었으며,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퀴즈를 통해 흥미와 참여를 이끌었다. 또한 금연 선포식을 통해서 학생들이 금연을 다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담배 속 유해 물질이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지 뿐만 아니라 간접흡연, 3차 흡연까지 다루어 학생들이 금연의 중요성에 대해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고등학교 2학년 임○○은 "보건 수업 시간에 배워서 알던 내용이었지만 복습 차원에서 쉽게 알려주시고 중간 중간 흥미진진한 마술공연과 함께하니 한시간도 눈을 땔 수 없을 만큼 재밌고 집중도 잘되어 좋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행사를 통하여 선생님과 학생들이 일상에서 겪는 고민과 문제는 잠시 내려놓고 마술 공연을 통해 모두에게 환호와 웃음이 가득한 유익한 흡연예방교육의 시간이 되었다

윤근수/기자

# 2023학년도 별뿔 달뿔 발명캠프 발명의 꿈을 키우는 재능나눔 발명콘서트 실시

## 김중운 교육장, "창의성·도전적의식을 가진 미래인재양성을 위해 발명교육이 참 중요해"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은 지난 7일(금)부터 7월 8일(토) 1박 2일 동안 2023학년도 별뿔 달뿔 발명캠프를 실시했다.

2023 별뿔달뿔 발명캠프는 상주교육지원청에서 상주관내 희망 학부모 대상으로 학생들의 창의성을 키우기 관련 학부모 연수를 실시했다. 또한 상주학생수련원에서 상주관내 초등 5학년~ 중2학년 학생 중 발명에 관심 있는 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1박 2일 '발사포와 함께하는 재능나눔 발명콘서트'도 운영했다.

대한민국 발명대상 수상자로 구성된 발사포의 회원 중 10명의 재능나눔강사가 참여한 '발사포와 함께하는 재능나눔 발명콘서트'는 과학마술 및 창의력 신장을 위한 강연과 학생 체험형 발명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새로운 관

점에 사물의 보는 힘을 기르고 발명에 흥미를 가질 수 있었으며 스스로 새로운 것을 창작하면서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시간이 됐다.

배은식 강사는 "학생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만들어 내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교사는 이를 이끌어 내어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학생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존중하고 표현하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중운교육장은 "다가오는 미래교육을 위해 창의성을 갖춘 인재가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런 창의성과 도전적의식을 가진 미래인재양성을 위해 발명교육이 참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공·사립학교 불균형 고친다"공정한 지원 받도록 제도 개선 노력

## 제50회 경기사립학교장회 주관 '경기사학포럼' 특강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7일 "공립과 사립학교 간 불균형이 없도록 공정한 제도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전 연세대학교 연곡문화센터에서 열린 경기사립학교장회 주관 제50회 경기사학포럼에 참석해 초·중·고·특수 사립학교장 및 사립학교 관계자 등 250여 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임 교육감은 특강에서 "사립학교는 설립 취지가 공립과 다르고 건학이념부터가 쉬운 결정은 아니다"라며 "사람을 사회적으로 성장시키고 세상을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준비"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 미래교육 상황을 공유하면서 "큰 방향에서 경기교육 설계도에 문제가 있거나 시대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절대적으로 옳은 것

은 없기에 좋은 의견 전해주시면 보완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사립학교 학생들이 공공립학교 학생보다 덜 지원받는 것은 불균형하고 공정하지 않다"라며 "학생들이 균형 있게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 계신 여러분이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경기사학포럼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 실시하는 행사로, 학교경영과 미래교육의 방향을 위해 경기사립학교장회 주관으로 마련됐다.

경기사립학교장회 정길현 회장(성문중학교장)은 "사립학교 교육 현안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한 뜻깊은 행사"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도내 사립학교는 총 248개(초3, 중87, 고136, 특수22)이다.

최만식/기자





# 성북구, 캠퍼스타운 사업 5개 대학과 지역이 뭉쳤다

## 5일 고려대학교서 캠퍼스타운 사업 5개 대학과 지역 상생 관계자 모여

서울 성북구가 5일, 고려대학교에서 고려대·국민대·동덕여대·서경대·한성대가 함께하는 '2023 성북클러스터 지역활성화협의회'를 개최했다. '성북클러스터'란 성북구청과 성북구 관내 캠퍼스타운 사업을 진행하는 고려대, 국민대, 동덕여대, 서경대, 한성대 5개 대학이 연계한 청년창업 집합체로 지역활성화협의회는 2022년 성북클러스터 협약체결을 시작으로 2회째 개최됐다.

2023 성북클러스터 지역활성화협의회에서는 이승로 성북구청장, 임현주 성북구의회 부의장, 양순임 성북구의원, 유혁 고려대학교 연구부총장, 임홍재 국민대학교 총장, 리상섭 동덕여자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장, 김법준 서경대학교 총장직무대행, 이창원 한성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각 대학 사업지 별 주민자치회장과 상인회장 등 지역상생 관련 관계자가 참

석해 지역활성화를 위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허원 안암동 주민협의체 대표는 "캠퍼스타운 사업은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운영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문 정릉4동 주민자치회장은 "청년창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대학과 연계하여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기현 성북천 상인회장은 대학과 연계한 주민자치활동지원사업 사례를 소개하며 "민·관·학 협치를 위한 끊임없는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지역상생을 위해서는 현장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성북구 관내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 23년부터 우수사례 선정 횟수 확대 및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강화

금천구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구민의 편의 증진에 기여한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

구는 구민과 부서로부터 적극행정 사례를 추천받아 구민 체감도, 담당자의 적극성·창의성·전문성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거친 후, 적극행정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상반기 우수사례는 ▲(최우수) G밸리 환경개선을 위한 공공기여 효율화 추진 ▲(우수) 공원·산림 내 수해복구를 위한 사유지 녹지활용계약 및 토지 무상사용 계약 ▲(우수) 신속통합기획 추진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숙원 사업 해결 ▲(장려) 새로운 방식의 홍보를 통한 혁신적인 정책 소통 제고 ▲(장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통한 어린이 안심통학로 확보로 등 총 5

건이다. 금천구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 분위기를 확산과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해당 업무로 성과를 낸 직원을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우수사례 선정 횟수를 기존 연 1회(3건)에서 연 2회(10건)로 확대했다.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직원에게는 구정장 표창과 함께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복지포인트 지급 등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최근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각종 지원으로 적극행정에 대한 공무원의 부담을 덜고 조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황신/기자



# 서울 중구에 '딱 좋은' 일자리 만들어줄 '일자리 거버넌스' 출범 '일자리의 중심' 중구 '일내다'

## 관내 공공기관, 전문가, 단체, 산업 대표 40여 곳 모여 5일 '비전 선포식' 개최



서울 중구가 지역의 특성과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일자리 민관협의체(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지난 5일 '일자리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중구의 인구는 12만 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적지만 사업체가 6만여 개에 달하며 금융, 행정, 제조, 관광, 숙박, 도심 산업, 도소매업 등에 45만 명의 종사자가 일하고 있는 대단지 일터다.

이러한 유리한 입지는 구도심의 강점이자 약점이다. 중구는 도심공동화로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어, 지금의 추세라면 20년 후 중구의 생산가능 인구가 9만 명에서 6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구의 전통 산업인 인쇄·봉제 산업의 경우 영세한 사업장이 많으며 코로나19 충격 후에도 규모가 계속 줄

어지고 있다. 구는 인구 감소, 고령화, 산업 지형의 변화가 불려올 미래의 일자리에 주목하고 대책 마련을 고민해왔다.

올해 1월 일자리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중구 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안'을 마련한 후 395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9천2백여 명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었다. 공원관리, 클린코디 등 구민 생활과 밀접한 일자리 제공,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교육, 일자리 플러스 센터 운영, 청년창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그러나 구가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은 주로 비정규직, 낮은 수준의 직업 능력 개발에 그치는 등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구는 지역의 여건과 전망을 충분히 검토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일자리 사업에 접근해야 한다고 판단했

정책의 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고용센터 조정숙 소장은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 중구청의 중추적인 역할이 기대된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구인구직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도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 김중환 본점장은 "중구가 주민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보면서 열정이 느껴졌다"며, "롯데백화점이 중구에 1979년부터 터를 잡고 대기업으로 성장한 만큼 지역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중구와 함께 힘쓰겠다"고 전했다.

동국대학교 캠퍼스타운 전병훈 사업단장은 "대학 울타리를 벗어나 지역 자원과 연계할 때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며 다양한 분야의 정보가 어우러져 빛어낼 성과에 큰 기대감을 표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40여 개의 기관이 '집단 지성'의 힘을 모아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과 내용으로 지역주민과 상생해 나갈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당장 이익이 생기는 일이 아니지만, 모두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긴 여정에 가까이 동참해 주신 회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 관악구 행운동 먹자골목, 전국 최초 악취저감특화거리로 조성

## 서울시 공모에 행운동 먹자골목 유일하게 선정, 전국 최초로 악취저감특화거리로 조성

관악구가 행운동 먹자골목을 악취저감특화거리로 조성해 깨끗한 골목상권 만들기에 나선다.

구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악취저감특화거리 공모에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선정되어 행운동 먹자골목 음식점 20개소에 악취저감시설을 업소당 최대 3개까지 설치한다. 또한 지속적인 악취저감을 위해 악취저감시설 유지관리비용도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3년간 지원한다.

악취저감시설을 사용할 경우 음식 조리시 발생하는 복합악취를 최대 63%까지, 먼지는 최대 85%까지 저감시킬 수 있어 직화구이 음식점 등이 밀집한 먹자골목에서 발생하는 냄새나 먼지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악취저감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업소별로 실시하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악취개선효과 결과를 분석하고 반영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쾌적한 골목상권을 조성함으로써 상권으로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악취저감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통해 깨끗하고 냄새 없는 골목상권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여러분들께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KUMHO Waterpolis**  
**금호워터폴리스**

- 상업, 근생, 지원, 단독주택, 주차장용지 수의계약 공급 중
- 관광숙박시설용지 공급 중

**안심뉴타운**  
**ANSIM NEWTOWN**

- 일반상업, 준주거시설용지 수의계약 공급 중

분양문의 053) **350-0300**

**대구도시개발공사**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dudc.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반짝반짝 빛나는 「제18회 부산국제어린이 청소년영화제」 개최

10일 18시,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개막식 상영회, 관객과 대화,

애니메이션 음악회, 양성평등놀이터 등 행사 펼쳐

10~16일까지 영화의전당, 영화진흥위원회, 영상산업센터, 중구 유라리광장 개최

‘아이에겐 감성을, 어른에겐 감동을’이라는 표어 아래 54개국 163편 영화 상영

부산시는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영화의전당, 영화진흥위원회, 영상산업센터, 중구 유라리광장에서 어린이·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만드는 영화·영상축제인 「제18회 부산국제어린이 청소년영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이에겐 감성을, 어른에겐 감동을’이라는 표어(모토)로 개최되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총 54개국 163편의 영화를 상영하며, 이 중 113편이 최초 공개(프리미어)로 국내에 선을 보인다.

오늘 10일 오후 6시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상영회 ▲관객과의 대화 ▲포스터 그림전시회 ▲애니메이션음악회 ▲전시 및 체험이벤트 ▲학술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가 다양한 장소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올해 개막식에는 어린이청소년 집행위원 ‘비키즈(Bikies)’가 어린이를 보호와 양육의 대상이 아닌 존엄한 주체로 인식하고 어린이 인권의 의미를 되새겨 줄 수 있는 선언문을 낭독한다.

개막작은 올해 베를린국제영화제 세대(제너레이션) 부문의 개막작으로도 선정되었던 ‘도미엔헤이허’ 감독의 <반짝반짝 빛나는>이 선정됐다. 상실과 애도의 경험 속에 성장하는 청소년의 내면을 그린 작품으로 7월 10일 오후 7시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김기환 부산시 문화체육국장도 “이번 영화제는 어린이, 청소년은 물론 부산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영화 축제의 장으로 시민 여러분께 다가가겠다”라며, “유네스코 영화창의도시 부산에서 영화제를 통해 어린이, 청소년들이 꿈을 키워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상영작과 시간표 등 영화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누리집(http://biky.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영작 예매는 영화의전당 누리집(http://www.dureraum.org) 또는 현장에서 가능하다.

송준진/기자



## 대전 0시 축제, 지역 4개 대학교와 손잡았다

7일, 대전시·4개 대학 업무협약 체결... 대학생 참여·행사홍보 협력

대전시는 오는 8월 개최되는 ‘대전 0시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덕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우송정보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학생의 적극적인 행사 참여를 통해 젊은 감성이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을 만들고, 행사를 계기로 시와 대학교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에는 이장우 대전시장, 대덕대학교 이재열 총장 직무대리,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최영수 부총장, 대전보건대학교 이병기 총장, 우송정보대학 이달영 총장이 함께했다.

협약에 따라 대전시와 4개 대학교는 ‘대전 0시 축제’ 행사 참가자 모집 및 인력 채용에 있어 지역 대학생 우선 선발, 대전 0시 축제의 행사 홍보, 일류 관광도시 대전의 위상 정립과 대학교의 지속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게 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 0시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함께 손잡아 준 대학교 총장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잠들지 않는 대전, 꺼지지 않는 재미”라는 축제 캐치프레이즈처럼, 대전이 가진 모든 재미가 어우러진 대한민국 최고의 여름 축제를 지역 대학교와 한 팀을 이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지난 5월 관내 7개 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에 4개 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해, 대전 0시 축제가 젊은 에너지가 넘치는 축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대전 0시 축제는 오는 8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대전역에서 옛 충남도청 구간 1km 도로를 통제하고 중앙로와 원도심 상권 일원에서 개최된다.

김원호/기자



## 서울 마이스(MICE)의 미래 비전... 서울시, 마이스 업계와 공동선언 선포

서울 마이스의 질적 성장과 글로벌 마이스 선도도시 도약 위한 실천사항 다짐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7일, 국내 최대 규모의 마이스(MICE) 민관협력체 서울마이스얼라이언스와 함께 ‘서울 마이스 공동선언’을 선포하고, 서울 마이스 산업의 재도약을 다짐한다.

‘서울 마이스 공동선언’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마이스 생태계 체질을 개선하고 질적 성장을 도모해 글로벌 마이스 선도도시로 도약하고자 마련된 미래 비전이자, 마이스 민-관 합동 공동선언이다.

공동선언문은 서울 마이스 산업 발전을 위해 SMA 6개 분과(△MICE시절, △유니크베뉴, △전시, △MICE 유치 PCO, △MICE 유치 여행사, △MICE지원)가 협의를 통해 직접 실천 조항을 도출했다.

분과별 특성을 담은 주요 실천 조항은 ▲ESG 실천 및 안전한 MICE 시설 운영 ▲서울의 고유한 가치 기반의 베뉴 제공 ▲서울 대표 전시 콘텐츠 발굴 ▲프리

미엄 여행상품 개발 ▲지속가능한 MICE 행사 개최 ▲최적의 MICE 서비스 지원이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서울 마이스 공동선언’과 함께 서울 마이스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2023 서울 MICE 비즈니스 데이’를 개최하고, 업계 간 비즈니스 상담과 함께 경영·법무, 인사·노무 관련 전문위원 멘토링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국내 마이스 주최자 39개사 및 SMA 회원사 60개사 등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마이스 공동선언, △1:1 비즈니스 상담회 △서울관광·MICE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컨설팅 △참가자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먼저, 1:1 비즈니스 상담회는 ‘서울 MICE 비즈니스 데이’의 핵심 프로그램

으로, 국내 마이스 주최자와 SMA 회원사간 비즈니스 교류의 장이다. 특히 올해는 MICE 주최자로 국내 학·협회뿐 아니라 정부 및 공공기관, 일반기업도 초청되어 총 203건의 내실 있는 비즈니스 상담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상담 실적(109건) 대비 94건(86%)이 증가한 것으로, 보다 활발한 비즈니스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서울관광·MICE기업지원센터의 전문위원(변호사 및 노무사)에게 경영·법무, 인사·노무 분야 상담을 하루 안에 모두 받을 수 있는 ‘멘토링 데이’를 지자체 최초로 운영한다. ‘멘토링 데이’는 전문위원과 일대일로 매칭되며, 사전에 예약을 통해 총 21건이 행사 당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관광·MICE기업지원센터’는

2019년 6월 개소했으며, 서울 소재 관광 및 마이스 기업 대상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영·법무, ▲인사·노무, ▲회계·세무, ▲심리상담 분야 전문 컨설팅 및 법정 의무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마이스 업계의 질적 성장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실천을 도모하기 위해 친환경 요소를 담은 축제의 장으로 꾸며진다. 플라스틱 대신 종이팩 생수를 제공하고, 현수막 대신 LED 스크린과 재사용 종이 제작물을 사용하며, 업사이클링 소재로 제작된 첼로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태원 상권 활성화를 위해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에서 행사가 개최되는 만큼, ‘용산상랑상품권’으로 구매한 기념품을 제공하고 행사 이후에는 이태원 관광코스를 안내해 주변 상권 회복을 도모한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서울 마이스 공동선언’이 민관이 뜻을 모아 더욱 의미 있는 만큼, 마이스 산업의

재도약을 이루고 글로벌 마이스 선도도시 서울의 위상을 높이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서울에서 더 많은 마이스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업계와 힘을 합치고, 서울시 차원의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2023 서울 MICE 비즈니스 데이’를

통해 실질적인 비즈니스 창출을 도모하고 서울 마이스 공동선언을 통하여 민-관 합동으로 MICE 업계 미래 비전을 선포하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서울 MICE 생태계 강화를 위하여 서울MICE얼라이언스와 적극적인 공동마케팅을 펼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최광수/기자



Everywhere Green Life, H<sub>2</sub> KOGAS  
KOGAS가 만들어가는 Fill · Feel ·必

# KOGAS가 FEEL합니다

더 깨끗한 세상을 위한 KOGAS의 ESG  
KOGAS의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행복 에너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한국가스공사  
KOREA GAS CORPORATION

 봉화군  (재) 봉화축제관광재단

봉화로 COOL한 여행 ————— 은어와 HOT한 만남!



BONGHWA SWEET FISHES FESTIVAL

**2023**  
**07.29** SAT — **08.06** SUN

봉화군 봉화읍 내성천 일원

**친환경 양수발전소 유치**  
3만 군민 모두의  
꿈과 희망을 담아  
간절히 소망합니다!